

수용성+비수용성 오일미스트 제거  
**미스트 집진기**

Condensing  
**MIST COLL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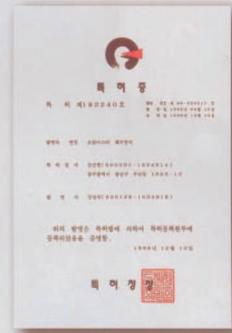


▲ Model : JMC-8000

● 제품 현장 설치도



작업공정시 발생되는  
수용성, 비수용성  
오일 미스트를  
강력한 Fan Motor로  
흡입한 후  
응축 및 원심분리하여  
제거하는 컨덴싱타입으로서  
필터 교환이 필요없는  
집진기입니다.



용도

- 공작기계(CNC선반, 연삭기, 머시닝센타, 호닝머신 등)
- 전기, 전자, 반도체 설비의 각종 전용기
- 전용기, 자동화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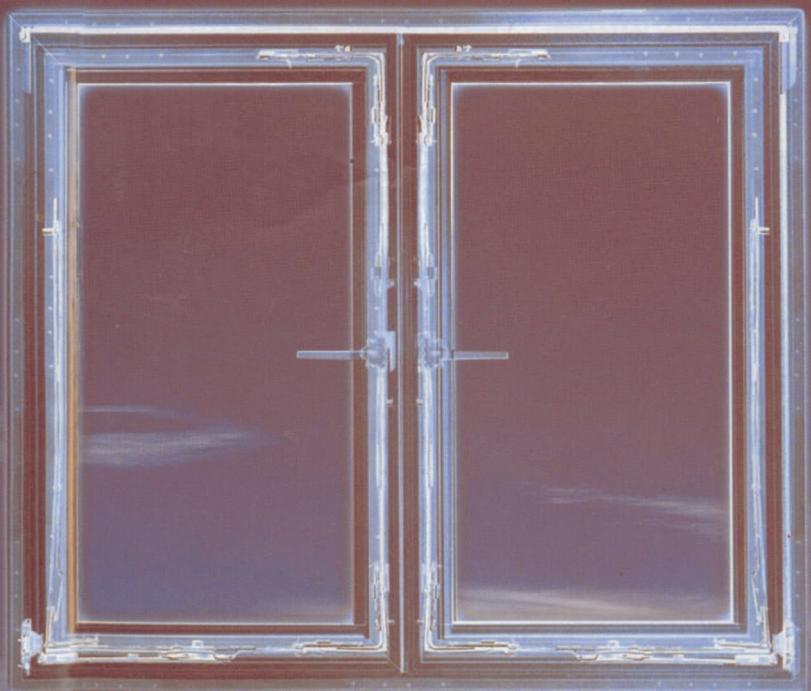
- 부품 세척 장치
- 식품 제조 설비라인
- 기타 MIST가 발생되는 공정

**JOUL**

줄 아이엔씨  
JOUL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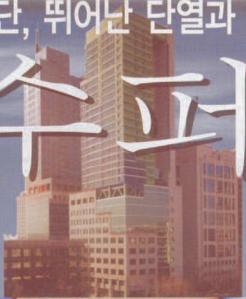
분사·공장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3-5  
TEL : 062) 972-4455(代)  
FAX : 062) 972-4400  
e-mail : [joul@joul.co.kr](mailto:joul@joul.co.kr)  
대표 강선행(9회 배관과) 011-609-0613

서울영업소(서울, 경기) : 박충주(10회) 018-242-8110  
TEL:02)6275-5681 FAX:02)894-5682  
부산영업소(부산, 경남) : 김재명(10회 배관과) 017-563-3905  
TEL:055)382-3905 FAX:055)384-3904



완벽한 소음차단, 뛰어난 단열과 보온 효과

# 해강수퍼샤시



대표이사 박근배(3회 전기과)

본사/공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419-76  
TEL. 052-263-8005~6 FAX. 052-262-8009  
<http://www.haegang.co.kr>  
E-mail : haegang8005@naver.com

부산전시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43-54  
TEL. 051-501-9006~7 FAX. 051-517-9557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B/D 2층  
TEL. 02-548-4041(代) FAX. 02-543-3647



## “맛의 진수를 경험하십시오”

“저요? 아직 형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한 재료에서만큼은 특급 호텔 일식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박명호, 박명식(24회 기계과)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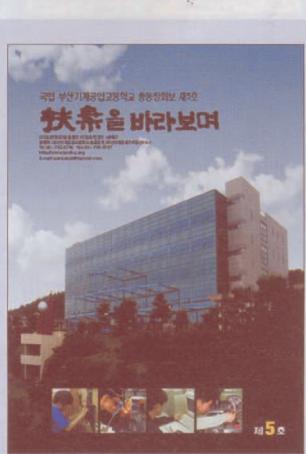
眞壽司

부산시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35-3  
Tel. 051-557-0676.  
h.p. 016-845-0676  
e-mail. jinsusa@hanmail.net



월 1천원으로 자부심을…! **부수를 바라보며**

## 월 1천원으로 자부심을…!



5호 표지설명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부상을 바라보며' 와  
종합 실습관을 주제로 후배들의 청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요리를 표현하였다.

촬영/ 황해구 (총동창회 사무국장)  
포토그래피, 디자인 / 이남연 (새론기획)  
Tel. 051-245-9817  
H.P. 011-853-9817  
<http://www.saeronet.co.kr>



차(茶) 판매컨설팅 | 포장문 제작, 홍보용 책자  
**초록원**  
부산시 중구 영주2동 321 대청공원  
051-464-5005, 469-2197  
018-762-5005  
[teamart@shinbiro.com](mailto:teamart@shinbiro.com)

동창회의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월 1천원이면 우리 동창회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  
습니다.

재정의 자립이 동창회 활성화의 토대입니다.

23,000여 동문이 월 1천원이면 1년에 1만2천  
원이며, 동문 1만명만 참여해도 연간 1억2천여  
만원이란 거액이 됩니다.

그리면 사무국의 운영뿐 아니라 동창회보의  
발행과 홈페이지 운영, 장학사업, 동문들의 권  
익을 위한 일 등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동문 1인당 월 1천원으로 가능합니다.

월 1천원의 동창회비를 KTF전화(또는 휴대전화) 요금에 병  
과하여 납부하는 방안에 동참을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1. 동기회장 또는 지역(직장)동문회장이 소속 회원들의 일괄 동의를 받아 대표 서명  
하여 총동창회에 제출하는 방법

2. 개인적으로 동의엽서나 E-mail,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중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1인 1천원만 납부도록  
하겠습니다.

▶ 8단 단색 광고 중  
국제화컨설팅(대표 이성록, 9회) 업무 내  
용 추가

IRCA/KAB/BVQI 선임심사원  
ISO9001, ISO14001, QS9000,  
ISO/TS16949, AS9000/9100,  
OHSAS18001, etc.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68-12  
011-833-6231 / 051-515-6231

▶ 전단 컬러 광고 중  
LG전자 공조기특판 대표 최재식(11회 배  
관과)의 휴대폰 019-506-5162 삭제(15  
회 기계과 최재식 휴대폰임)

### 동문명부 정오표

동문명부 광고지면 중 오기를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 2단 컬러 광고 중  
아세아김정평가법인의 전화번호  
051-556-4800을 051-557-4800으로  
고침

▶ 4단 단색 광고 중  
유진정밀 대표 최병권(8회 전기과)을 배  
병권(8회 기계과)로 고침

## 동창회 소식

### 12회 골프동호회 결성

2002년 11월 15일에 12회 동문들 중 골프를 즐기는 동문들이 '골프12'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회장에 김영수, 총무에 김상화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매월 넷째 금요일 동부산CC에서 경기와 모임을 하고 있다.

### 이진복·조충호 동문 - 모교 3학년 대상 특강

총동창회 이진복 재정담당선임부회장(동래구청장)과 조충호 장학담당부회장(삼풍하이테크 대표)이 5월 10일(토) 11시부터 각 1시간씩 3학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다. 이번 특강은 산업체 현장실습과 진학을 앞둔 3학년들에게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에서 마련한 자리이다.

### 동문산악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동문산악회(회장 구윤덕)가 창립 1주년을 맞아 5월 10일(토)~11일(일) 1박2일 동안 진주 월야산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5회 동기회장인 박연수 동문이 조성하고 있는 농장에서 밤늦도록 캠프파이어를 하며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진 후(엄청 마셨음), 이

튿날은 월야산 등산을 하고 남강에서 잡은 붕어매운탕(5회 한웅수 동문과 직원이 밤새 낚시로 잡은)으로 입맛을 돋운 후 행사 마감하였다.

### 팔우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

8회 동기산악회(팔우회, 회장 이학용)에서는 5월 18일 창립 5주년을 맞아 모산인 금정산 장군봉을 등반하고 모산제를 지냈다. 하산 후에는 어김없이 족구 한판으로 몸을 풀고 범여사 아래 00집의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입가심을 했는데, 부인회원들 왈 "운동 열심히 하면 뭐해? 내려와서 술을 몇 배로 더 먹어버리는 걸..." 그래도 팔우회원들의 운동 열기는 알아줘야 될 듯.



정기산행은 물론 각종 마라톤대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요즘은 가을의 춘천마라톤에 대비하여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연습을 하고 있다.



흡족해 한 행사였다.

### 14회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

금년에 졸업 20주년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하는 14회동기회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준비모임을 하고 있다.

### 2차모임

5월 17일(토) 각 지역 대표 17명이 동창회 사무국에서 모였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밤늦도록 추진방안과 조직구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준비위원장에 이상환, 수석부위원장에 박광열, 총무에 강성수 동문을 선임하였다.

### 3차모임

6월 21일(토) 아방궁에서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 토의한 결과 행사장소는 모교 강당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추진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연락처 : 이상환(017-577-9421), 박광열(011-356-8782), 강성수(011-852-2748)

### 17회 동기회 결성

17회동기회가 결성되었다.

5월 24일 준비모임을 가진 후 6월 2일 아방궁에서 각 과별 대표가 모여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회장에 김철우, 수석부회장에 이재환, 총무에 황상규 동문 등 임원을 선임하고, 정



**모교 소식**

기모임을 매월 첫주 월요일 늦은 8시에 아방궁에서 갖기로 하였다.

연락처 : 회장 김철우(011-578-3683),  
총무 황상규(011-862-1935)

**울산지역 1~9회 소프트볼대회**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1회~9회 동문들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소프트볼대회가 5월 18일(일) 현대공고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6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하여 소프트볼과 족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구동문회 체육대회**

대구동문회(회장 이형철)에서 5월 25일(일) 칠곡군 대천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5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였다. 쓸어지는 비로 인해 경기는 못했으나 술과 부침개, 곱창전골 등 풍성한 음식으로 입운동을 열심히 하고 동문들 간의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주 볼 수 없던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처럼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홀수와 짝수 기로 나눠 작전줄다리기, 무지개풍선만들기 등의 경기를 하고, 어울림 한마당, 장기자랑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삼성중공업 동문가족(동백봉사단)****한마당축제**

6월 1일(일) 거제 삼성중공업동문회 체육대회가 사내 A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축구와 발야구(여자), 족구 등의 경기와 사생대회, 퀴즈게임 등 각종 이벤트와 풍성한 상품으로 참석한 동문 가족들의 입을 벌어지게 한 하루였다.

**삼성테크원 동문가족 체육대회**

5월 31일(토) 진해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삼성테크원 1,2,3사업장 동문회가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가졌다. 같은 회사이면서도 사업장 단위로 별도로 활동하면 터라

**경인동문회 체육대회**

6월 6일(금) 한강둔치에서 경인동문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예상을 훨씬 초과한 700여명의 동문과 가

족이 참가한 성대한 잔치가 되었으며, 1회를 비롯한 선배 기수에서도 많이 참가하였으며. 동문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축구와 족구, 발야구 등의 경기와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동문들이 많은 물품을 찬조해 준 덕에 경품 타는 재미가 쏠쏠했다.

행사 도중 소나기가 쏟아져 천막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경품추첨을 하고 동문들과 술잔을 건네는 모습이 정겨웠으며, 일부 기수끼리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내기 족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기에 지는 후배는 뭐며, 돈을 따가는 선배들은 뭔지, 원!)

행사를 끝내며 즉석에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돋는 성금을 모금하여 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국장인 조양상 동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 등장회 소식

### 울산지역동문회 단합대회

울산동문회 단합대회가 6월 7일(토)부터 1박2일 동안 상북면 송림가든에서 열렸다. 동문회 임원진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울산 특유의 끼를 양껏 발휘하며 결속을 다졌다. 토요일 오후부터 족구와 미니축구 등으로 몸을 풀고 간단하게 회의를 한 후 저녁부터 본계임(?)에 들어가 풀코스로 샛별을 볼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마무리는 아침에 미니축구로...

### 16회동기회 결성 준비모임

16회동기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6월 15일(일) 14:00에 부산 아방궁에서 있었다. 각 지역 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동기회 결성에 따른 의견들을 교환하였으며, 임시추진위원장에 정두권(기계과) 동문을 선임하고 7월에 다시 모여 구체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 강원연합동문회 동문가족 모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우정이 돈독하고 단합이 잘 되는 강원도의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6월 28일(토) 동해시 북평동 갯목에서 5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모여 1박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면 길들을 오느라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밤늦도록 회포를 풀었다. 이튿날은 모터보트로 바다를 산책한 후 무릉계곡을 등산하고 회를 비롯한 푸짐한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강원연합동문회 정기모임은 내년에 춘천에서 주관한다.

### 모교 기능특활부 후원회 결성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모교 선수들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하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난 6월 12일 아방궁에서 동문 10명이 모여 발기회 되었으며, 후원회장에는 총동창회 남중우 수석부회장, 간사에 조충호 장학담당부회장을 선임하였다. 이날 발기 모임에서는 약 3,0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되었다.

또 관심있는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로 하고, 후원회비는 1구좌당 5만원으로 정하였다.

발기인 : 구영석(4회, 성진하이메크), 남중우(5회, 태진정밀), 심상호(5회, 신풍정공), 정기영(5회, 우진설비), 전중수(6회, 기수정밀), 강맹수(8회, 성원정공), 하태권(8회, (주)서영), 이정호(8회, 성신암데코), 주광일(8회, 텐크테크), 최병철(9회, (주)이우), 김동환(9회, 원민FA시스템), 조충호(10회, 삼풍하이테크), 조성한(10회, 신성전기), 윤일진(10회, 고모텍), 이재환(17회, (주)톱텍), 거제 사업자동문모임 <16업체+1단체>

### 3회 동기회 개최

3회동기회(회장 박근배) 성반기 모임이 7월 12일(토) 부산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되었다.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동기회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동기들의 경조사를 적극 쟁겨 동기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1년에 2번 모임을 갖기로 하고 연말에 다음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 기능특활부 후원회원 모집

모교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고 기능을 장려하는 뜻있는 일에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로 기능인력이 모자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기초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산업화에 일익을 담당해 온 모교와 동문들이 앞장서서 기능교육을 되살립시다.

모교의 기능특활부를 후원함은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뜻있는 일일 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능특활생 출신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후원금 : 1구좌(50,000원) 이상  
문의 : 사무국(051-742-6746)

입금계좌 :  
국민은행 133101-04-020525 남중우  
(기능특활부후원회)

기능특활부 후원회장 남 중 우

## 모교 소식

### 종합체육대회 개최

모교 종합체육대회가 5월 16일(금) 개최되었다.

전교생을 동반(1~3반), 장산(4~6, 16반), 청룡(9~13반), 백마(7~8, 14~15반) 네 팀으로 나눠 축구, 배구, 농구 경기와 응원점수 등을 합산한 결과 우승은 백마 팀이, 준우승은 청룡팀이 하였다. 운동도 열띠었지만 응원전은 부산기공인의 전통을 잘 살려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각 팀은 이번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약 2주 전부터 옥상이나 실습장 주위에서 저녁 늦게 까지 단체로 응원연습을 하였다.



### 동창회보에 광고를…!

"광고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둠속에서 처녀에게 웅크를 하는 것과 같다. 당신 자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만 남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S.H. 브리트>

광고는 경영입니다. 광고는 정보입니다.

잘 만들어진 카피나 지면 하나가 귀사의 매출은 물론 회사 가치를 크게 높여드립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귀사를 알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광고보다는 소수일지라도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광고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 일회성 광고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광고가 효과적입니다.

동창회보는 전국의 2만3천여 동문을 대상으로 매회 1만여부를 직접 배포하는 가독률 100%에 달하는 좋은 광고매체입니다. 더구나 동문이라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떠한 매체보다 소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광고비로 귀사를 알리시고 동창회보가 지속적으로 발간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 구현득(2년) 스포츠클라이밍

#### 국가대표로 선발

지난 5월1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구현득 학생이 2003년도 "아시아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경기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다.

한편 모교 등산부는 지난 5월30일 실시된 부산시장기 제38회 부산학생 등산대회에서 고등부 3위로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어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모교를 주경기장으로 하여 부산 시내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모교에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것은 1990년 대회 이후 13년만이며, 모교에서 치러지는 종목은 21개 직종이다.

이번 기회에 모교에서는 종합우승과 숙원인 금탑을 수상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교에서는 선반/CNC를 비롯한 10개 종목에 출전을 한다. 치밀한 훈련계획에 따라 매일 밤 10시까지 지도교사와 선수들이 전심전력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동창회에서도 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을 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참여가 곧 동창회의 발전입니다.

광고는 정보입니다. 동창회보에 광고하십시오.

문의 및 접수 : 사무국

T.051-742-6746

F.051-746-6747

samukuk@hanmir.com



#### 46배판, 컬라 광고비

광고 지면	1회 광고	연간 광고(4회)	비 고
표4(뒷표지 168×237)	150만원		인터넷(표3) 포함
표2 전면(168×237)	80만원	280만원	표2 대면 동일
내지 전면(168×237)	70만원	250만원	
내지 1/2(82×237)	50만원	180만원	
내지 1/4(82×116)	30만원	100만원	
내지 둘출 광고	15만원	50만원	상호, 업종, 주소, 전화,

모교 기능특활부 사령탑 예석수 동문을 찾아  
“금년에는 꼭 금탑을 따야지요”

예석수(5회 배관과 졸업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실과부장)



이번 호에서는 모교 실과부장으로서 오는 9월23일부터 30일까지 모교를 비롯해 부산지역 각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모교 기능특활부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예석수 동문(5회 배관과)을 만났다.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지난 7월11일 예 동문을 찾아 실과부 사무실을 들어서자 예 동문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대회 준비와 짐검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예 동문과의 만남을 소개한다.

Q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모교에서는 몇 명의 선수가 참가하나?

-선반/CNC종목을 비롯해 모두 10개 종

목에 3학년 11명과 2학년 8명 등 19명이 참가하게 된다.

Q 대회를 앞두고 기능연마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 부산기능대회 이후 밤 10시까지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열심히 하고 있다. 기능대회 자체가 국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그러나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모교가 금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80년대 전후의 기능대회와 현재의 기능대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모교 출신의 선, 후배들이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라 경제가 크게 향상된 것

은 사실이지만 모두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학생들도 대학진학을 최종 목표로 하는 바람에 실업고가 찬바람을 맞기 시작했다.

특히 당장의 어려움은 기능특활을 하려는 학생이 없다는 점이다. 옛날(80년 전후)에는 전국 중학교에서 5%이내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해 반에서 1~2등을 하는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 기능특활생이 선발됐지만, 지금은 학생들을 일일이 면담해서 겨우 기능특활을 시키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Q 기능특활 신청학생이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나?

-가장 먼저 기능대회 입상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기능특활 출신의 학생들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 등에서 우대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옛날에는 기능특활 출신의 경우 메달의 등급에 따라 대학진학 때도 우대받았고 일반 기업체 취업 때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았지만 아무도 이를 시비 걸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기업 등에서 기능특활 출신이나 실업계 고교 출신을 우선 채용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의 실업계 고교진학이나 기능특활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Q 전국기능대회 총 연출자로서 느끼는 점은?

-기능특활팀을 지도한 경험은 있지만 이번처럼 총괄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봄아하기 때



문에 그만큼 시야를 멀리 보아야 한다는 점이 일반 교사로서 기능특활팀을 지도할 때와는 다른 부분이다.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모교를 빛내는 것이 기능대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과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동창회가 학교를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면 하는가?

-현재 모교 동창회에서 기능특활부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동문으로서 자랑스럽다. 운동부가 있는 타교의 경우에도 모교 교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지만 모교의 경우는 기능특활팀이 타교의 교기와 같기 때문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이 후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학회 성격의 기능특활부 후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창회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동문들이 많이 참여 했으면 한다.

Q 모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동문들이 후배들의 취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신입생 모집에서 모교는 2대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앞으로 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문들도 지역 주민이나 중학교 관계자들에게 학교

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능특활부 출신 동문들은 학교 동창회사무국으로 연락해 후배들의 기술지도 등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등으로 위촉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락해 주길 바란다.

한편 기능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견장을 어깨에 달았던 그 때가 마련한 추억 속에 빛바랜 앨범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예 동문은 지난 2000년도 부경대학교에서 「마이크로 씨모사이론의 열 전달」이란 제목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그 동안 기공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왔다. 예 동문과 함께 모교 후배들의 노력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금탑수상을 동문들은 한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취재/정은영(9회 기계과/경남신문 기자)

환경과 실습기자재 등 모교의 장점을 홍보하여 우수학생을 모교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기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 후배들을 적극 추천해 학생들이 좋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

Q 예 동문이 모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해운대가 고향이다. 당시에는 학교 이름이 한독직업학교였으니까 독일에 유학 갈 수 있다는 것과 졸업 후 대학진학보다는 배운 기술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모교에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독일 유학이나 공장 운영하는 것만은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기능특활부 출신 동문





### “진짜 아방궁을 세워야죠”

아방궁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덕을 모아 이 자리에 괜찮은 아방궁을 지어서  
최고의 요리와 서비스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Chinese restaurant

阿房宮

대표 서정희(17회 배관과) 051-556-3737  
롯데백화점 동래점 맞은편  
(명륜전철역에서 부산전자공고 방향 200m우측)

〈편집자가 추천하는 책〉

[현재보다 5배에서 100배까지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 학습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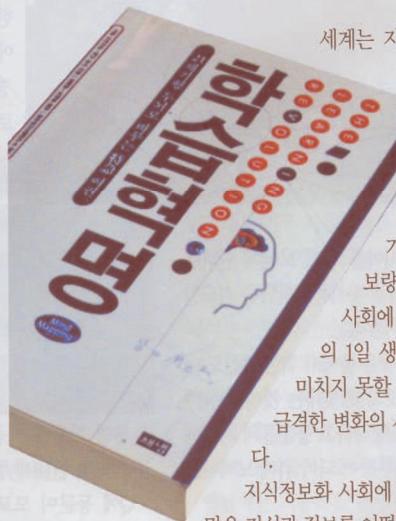
- 고든 드라이든 · 재닛 보스 지음/김재영 · 오세웅 옮김/해냄

- 하루에 4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 4~8주 만에 외국어 기초를 쌓을 수 있다.

- 학습능력이 5년 정도 뒤떨어진 아이도

10주 이내면 따라잡을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  
다. 지난  
수천 년  
간 인류  
분명과 역사  
가 결집한 총 정  
보량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이즈음  
의 1일 생산 정보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  
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섰지만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가  
공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막연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정보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의 흥수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만 한다면 현재  
보다 5배에서 20배까지 더 빨리,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효과적  
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학습혁명」의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 정보, 의사소통의 급격한 발전  
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학습방법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 책의 부제 「21세기형 두뇌로 바꾸는 특급 여권」이란 말처럼  
기존의 학습방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이 과학적인 연구  
와 선형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다.

『학습혁명』은 실제적이고 검증된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무려 1000년 전 사이로 수 천 톤을 판매,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육포 전문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육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져, 육포는 이제는 세계적인 한국 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멋진 미래를 위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프로그램들을 다룬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학습혁명』으로 정했다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대의 흐름을 분석한 후, 두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이용하여 학습하면 혁신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습에서 목표와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인드 맵을 활용한 학습법을 권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뉴질랜드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사업 영역

- 회사내 각종 Layout 공정도면
- 간판 및 표찰, 명판, 명패 일체
- 아크릴 판제 모든 품목
- 광고용 각종 시트지
- 네온싸인 간판용 재료 일체
- 아크릴 특수 가공
- 광고용 싸인 라이트
- 간판 후레임 제작
- 상담촬영

[www.gagaacryl.com](http://www.gagaacryl.com)

대표: 박성숙 (19회 전기과)  
018-577-1557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71  
T.052-211-3265 F.052-243-0890



전통의 저장식품  
“코스비”  
*Gift Set*  
**Cosbee**

소중한 분께 선물하세요 “코스비육포”  
우수한 품질의 육포가 다양하게 준비  
되어있습니다.  
‘보관이 용이한 선물 셋’

**고려식품**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유교리 854-4  
Tel.031-543-5700. Fax.031-543-5707  
<http://www.korea6po.com>  
대표 오광열(13회 기계과)

## 한국문화의 상징을 찾아서 여근(女根, 보지)



고씨동굴의 여근 강원도 영월

### ■ 어원

보지의 어근은 '붓(본)'이다. 일본에서 호토(hoto)인데, 보토(poto)가 원형이다. 어근 '붓(pot)'은 국어 '붓-'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문화어인 성기의 이름이 일치한다는 것은 두 언어가 동계

임을 알게 한다. 제주 방언은 보뎅이인데, 어근이 '붓-'이다.

불두덩, 불알에서 '불'의 조어는 '붓'이라 하겠는데, '붓'은 그 뿌리, 씨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무속에서 '부'



구석기 시대의 여성  
나상 오스트리아

본래 사람의 생식기는 남녀 모두 이마에 있었는데, 서로 쉽게 볼 수 있어서 성 도덕이 매우 문란하였다. 이것을 근심한 두 동자신이 서로 의논하여 그 위치를 지금 입이 있는 자리로 옮겼더니,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코가 불평하므로, 배꼽 있는 자리에 옮겼다. 그러자 하지 쪽에서 불평하였다. 그렇게 귀한 것을 상체에만 두는 것은 하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었다.

'리'는 근원, 조상, 혈통의 뜻을 지닌다.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 ■ 신화

[큰 바탕] 김수로왕의 비 허 왕후의 여근은 김수로왕의 남근에 못지않게 크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큰 잔치가 열렸는데, 바닥에 까는 자리가 마땅찮았다. 생각 끝에 왕후는 자기의 커대한 음문을 자리 대신 깔았다. 뜻밖에 커다란 자리가 생겨서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길 때, 한 손님이 그만 뛰어온 국물을 자리에 엎질렀다. 왕후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꾹 참고 잔치가 진행되게 하였다. 그 바람에 왕후의 여근 위에는 흥터가 생겼다. 지금도 김해 허씨의 후예는 여근 위에 검은 점이 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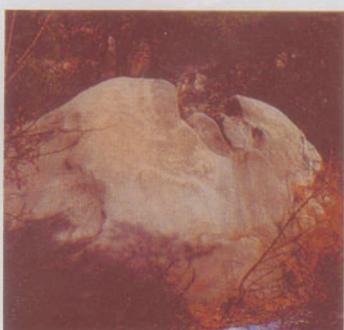
[중심] 본래 사람의 생식기는 남녀 모두 이마에 있었는데, 서로 쉽게 볼 수 있어서 성 도덕이 매우 문란하였다. 이것을 근심한 두 동자신이 서로 의논하여 그 위치를 지금 입이 있는 자리로 옮겼더니,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코가 불평하므로, 배꼽 있는 자리에 옮겼다. 그러자 하지 쪽에서 불평하였다. 그렇게 귀한 것을 상체에만 두는 것은 하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평하게 신체의 중앙에 놓는다고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입 둘레에 수염이 생기는 것은 생식기가 있었기 때문이며, 배꼽은 옛날의 그 흔적이라고 한다. 여근이 세로로 긴 것은 상체와 하체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자신이 여근 한 가운데에 못 모양의 쇄기를 박아 둔

### ■ 무속 민속

[생식, 풍요, 수호신] 여근은 민간 신앙에서 남근처럼 생식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긴다. 여근이 신앙 대상이 될 때에는 여근을 닮은 암석을 신체로 믿으면서 아들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빈다. 또는, 여근석을 마을 수호신으로 믿으면서 주민들이 병 없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빌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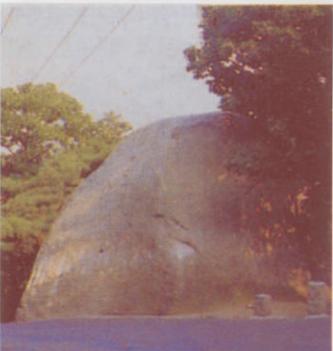
충북 제원군 송학면 무도리에 '공알바위' 신앙이 있다. 공알바위는 마을 입구 길 옆산이 빠죽이 튀어 나온 곳에 있다. 직경 150cm의 타원형 바위가 옴쪽 파이고, 그 안에 직경 100cm 가량의 난형 바위가 볼록히 솟아, 마치 여근처럼 생겼다. 이것을 성신의 신체로 믿고 있다. 이 공알 바위의 건너편 20cm 거리에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올라서서 돌 3개를 던져 그 중에서 1개가 맞아서 공알바위 속으로 들어가 앉히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이 공알바위의 구멍을 작대기로 쑤시면 동네



여근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처녀가 바람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금 한다. 물론, 공알바위에 돌을 던져 얹히게 하는 행위나 작대기로 쑤시는 행위는 모두 성행위를 상징한다. 공알바위에는 개별적인 행위 외에, 1년에 한 번씩 정초에 동신제를 지내고,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또, 서울의 북한산 아래 도선사로 들어가는 길옆에 ‘붙임바위’가 있다. 조그만 돌을 쥐고 이 바위에 문지르다가 불게 되면, 아들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돌을 문질러 붙이는 그 반복 동작은 성행위를 상징하고, 붙임바위 전체가 여근을 상징한다.



붙임바위 서울 도봉구 도선사 입구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송림 속에 있는 바위는 윗부분에 여근 모양이 천연적으로 파여 있다. ‘보지바위’라고 하는 이 여근 암에 돌을 끼워 두면, 동네 처녀나 과부가 바람이 난다고 해서 동네 어른들은 이 바위에 올라가 끼워진 돌을 꺼내면서 역정을 내곤 한다.

금강산 해금강에 여근 모양의 암굴이 있

다. 그 안에 종이나 형겼으로 싼 남근 모양의 석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것 역시 여근상을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신앙심의 표현이다.

### ■ 풍습

[다산, 재생] 고대인의 분묘인 고인돌이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여근을 상징하는 고인돌에 들어가 재생한다고 믿은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풍수지리설의 좌청룡, 우백호의 지형은 사람의 두 다리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뒷자리는 여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석물의 변형으로, 남근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여근 상징인 무덤에서 남근 상징인 망주석의 성력에 의해 재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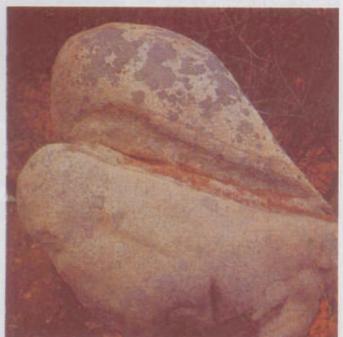
중부이남 지방에서는 정월 보름과 5월 단오, 8월 한가위에 풍년을 기원하거나 가뭄 때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줄다리기는 대개 마을 대항으로 편을 갈라 각각 암줄과 수줄을 준비하여 결합시킨 다음에 당기는데, 이긴 쪽이 그 해에 병에 걸리지 않고 풍년이 든다고 하여 온 마을 사람이 힘을 다해 줄을 당긴다. 암줄은 여근 상징으로 머리 부분을 둥근 고리처럼 만들어, 그것이 길쭉한 수줄을 훠고 비녀목을 질러 결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줄다리기의 줄은 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암줄과 수줄의 결합은 양성의 결합에 의한 다산과 풍요

를 기원하는 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호남의 해안 지방에서는 마을의 남녀가 편을 갈라 외줄을 당기는데, 여자 쪽이 이겨야만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것도 여성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심성의 표현이다.

### ■ 종교

[불경] 여근은 경건성을 중시하는 유교와 불교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이요 수도인의 타락이며, 나아가



여근석 경기도 안양 삼막사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불교에서 보제는 산스크리트 보디의 한 자 음역이다. 불교에서 최상의 이상인 깨달음의 자혜 또는 깨달음의 자혜를 얻기 위한 수도 과정을 이룬다. 그런데 보제는 우리말의 보지와 소리가 비슷하여 신성한 불교 수도에 곤란하므로, ‘보리’라고 고쳐서 발음하게 되었다. 보리심, 보리성, 보리문, 보리강, 보리수 등이 그 예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보리 역시 보지와 어원이 같

## 여근(女根 보지)

다고 한다.

### ■ 동양 문화

[여성, 성행위, 땅] 동양에서 여근은 여성, 성행위, 욕설, 자식두기 등의 의미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밭이 고 남성은 씨(종자)라고 하여 여근을 땅이나 대지에 비유한다.

[풍요, 행운] 일본에서는 3대 기제인 다카타 신사, 아스카니마스 신사, 오가타 신사에서의 풍년제 때, 농사의 풍작, 사업의 번창, 자손의 번영, 정력의 회복, 혼사의 성취,

아들 낳기 등을 기원했다. 이 때, 먼저 붉게 칠한 거대한 남근상을 가마에 태워 여러 사람이 메고서 마을을 누볐다. 그런 다음, 여근을 상징하는 신체를 모신 마을의 신사로 향하였다. 천지 음양의 조화를 축진하여 풍작을 가져오게 하는 제의적인 의미가 담긴 행사였다.

우리나라의 차전놀이와 고싸움도 여근을 상징하는 암동았줄에 남근을 상징하는 수동았줄의 코를 꿰는, 남근과 여근의 합일로 음양의 조화를 축진함으로써 풍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예와 상통하는데 있다.

### ■ 역사·문화

[승리] 신라 제27대 선덕 여왕 5년 겨울,



인물토우의 여근 신라

대궐 서쪽 영묘사 옥문지에서 많은 개구리가 3, 4일간 물었다.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왕에게 아뢰니, 왕은 “여근곡을 탐문하여, 거기에 반드시 적병이 있을 터이니, 잡아 죽이라.”고 하였다. 왕의 명을 받은 군사들은 여근곡으로 가, 숨어 있던 백제군을 섬멸하였다.

선덕여왕은 미혼인데도 남근과 여근의 성상을 알았다.

‘고금소총’에 관부인전이 있다. 관부인은 옥문에 적을 둔 여인으로, 붉은 얼굴과 빨간 입술에 성질이 온유한 비구니인데, 숲 속

에 사는 사나운 주맹장군의 침입을 받았다. 관부인은 주맹장군을 방어하다가 물을 부어 죽이고 말았다.

주장군전의 주장군은 이름이 맹이요 자는 양지인데, 보지라는 연못 근처의 땅이 비옥하고 숲이 무성하며, 주민이 적어서 개간하면 좋을 것이라 는 말을 듣고 그 곳에 갔다가 연못의 신이 거부하여 죽고 말았다.

관부인은 여근을 의인화한 것이고, 주장군은

남근을 의인화한 것으로, 그 내용은 성행위를 하다가 용맹하다는 주장군이 죽은 것이다.

[여성의 복] 구비 문학에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부자가 세 딸에게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고 물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부모의 덕으로 산다고 하였으나, 셋째 딸은 내 복으로 산다고 하여, 노한 부모가 집에서 쫓아냈다. 쫓겨난 딸은 숯장수와 혼인하여 살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셋째 딸이 내 복으로 산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배꼽 아래 한 뼘 되는 곳에 있는 거울 덕분으로 산다.”고 한 것으로, 여자의 복은 여근임을 말한 것이다. 성숙한 여근의 소유자는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으므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음정] 판소리 ‘변강쇠가’에서 천하의 음남 음녀인 변강쇠와 옹녀가 주고받는 사설 중, 외설스러운 말로 여근을 풍자하면서 음정을 토로하는 대목이 있다.

천생 음골 강쇠놈이 여인 양가 번 듯 들고 옥문관을 굽어보며, 이상히도 생겼다, 맹랑히도 생겼다, 늙은 중의 입일는지 털은 돋고 이는 없다. 소나기를 맞았던지 언덕 깊게 파이었다. 콩밭 팔밭 지났던지 돌부꽃이 비치었다. 도끼날을 맞았던지 금 바르게 터져 있다. 생수처



토우의 여근 신라

옥답인지 물이 항상 괴어 있다. 무슨 말을 하려관대 음질음질하고 있노. 천리행룡 내려오다 주먹바위 신통하다. 만경창파 조갤는지 혀를 빼줌 빼었으며, 임실 곶감 먹었던지 곶감씨가 장물이요, 만첩 신중 으름인지 제라 절로 벌어졌다. 연계탕을 먹었더니 닭의 베슬 비치었다. 파명당을 하였던지 더운 김이 그저 난다. 제 무엇이 즐거워서 반쯤 웃어 두었구나. 곶감 있고, 으름 있고, 연계 있고, 제사장은 걱정 없다.

〈동아출판사 발행 '한국문화상징사전'에서〉

## 행복한 꿈! 추억 만들기!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웨딩홀에는 대형 스크린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 신랑 신부 인터뷰 및 야외 촬영모습, 어릴때 자라는 모습, 가족 인터뷰등을 뮤직 비디오로 제작하여 결혼식 전에 상영해드립니다.



전문건설회관 웨딩  
전문건설회관 1층 시네마 아트홀

부산역 대한통운 웨딩홀  
부산역 대한통운 15층 웨딩홀

대표이사  
**盧龍晚**  
NOH Young Man  
(12회 기계과)  
H-P: 018-585-6922  
email: cinema-i@hanmail.net

전무/촬영감독  
**박종남**  
PARK Jong Nam  
(14회 기계과)  
H-P: 011-835-2588  
E-mail: f64kr@yahoo.co.kr



www.ccwedding.co.kr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53-40,  
전문건설회관 1F~3F  
TEL. 051-637-1010(代)

**CHUNG JO**  
Total Wedding & Studio  
www.ccwedding.c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64-46,  
금정구청 후문입  
TEL. 051-581-6060(代)

**SAMJEON**  
BOLT & NUT / ALL FASTENERS

■取扱品目

- HEX BOLT • STUD BOLT • ANCHOR BOLT • HI-TENSION BOLT
- SPECIAL BOLT류 • NUT류 • WASHER류 • 기타 특수 나사제품

대표 김영태(13회 기계과) 011-876-7912  
부장 김진택(15회 기계과) 016-558-7913

**三田金屬工業(株)**  
SAMJEON METAL CO., LTD.

釜山廣域市 沙上區 三樂洞121-1번지  
TEL: 051-305-6446(代) 313-3001. FAX: 051-305-6448. www.boltone.co.kr

〈레저스포츠 소개〉

## 윈드서핑

—글. 황해구(8회, 사무국장/한국윈드서핑협회 이사)

탁 트인 바다!

포말을 일으키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컴퓨터를 바다를 빠르게 질주하다 파도를  
만나면 높이 솟구쳐 오르며 눈부신 묘기  
를 부리는...

윈드서핑!!!

여름이면 누구나 동경하는 운동이다.

필자는 비교적 일찍부터 윈드서핑을 비롯한 신종 레포츠를 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젊은 시절을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보냈다.

레저스포츠에 빠지면 상당 기간 하던 모든 일들을 뒷전에 물릴 각오를 해야 한다.

마약과 같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도 그렇게 십수년을 보냈고, 필자에게 윈드서핑을 배운 사람들이 사업이나 하던 일들을 뒤로 미루는 걸 수없이 보았다.(참고로 윈드서핑학교를 운영했음)

윈드서핑의 매력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질주하는 스릴감에 있다.

바람이 센 날 윈드서핑의 속력은 웬만한 모터보트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 더욱이 그런 속도가 아무런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바람만 이용해서 낸다는 사실은 경이롭기조차 하다.

윈드서핑의 재미가 스피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파도가 높을 때는 그 파도를 이용해 점프와 회전을 하기도 하고 각종 묘기를 부릴 수도 있다.

거기다 바다의 풍부하고 신선한 오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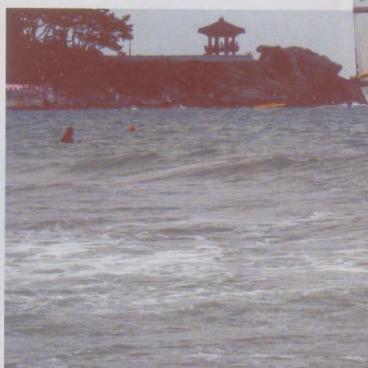
마스트를 연결함으로써 돛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고, 원하는 바대로 서핑과 요트의 재미를 느끼며 더 자주 세일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윈드서핑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올림픽 종목 사상 최단기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 10월 권희범씨가 대한해협을 횡단하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한 이후, 열성적인 선구자들에 의해 보급이 되다가 86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중스포츠로 자리리를 잡았다.

윈드서핑은 장비가 매우 단순하고 이동이 용이하며, 물과 바람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물에서 하므로 부상의 위험이 매우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장비자체의 부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구명동의를 착용하므로 항상 물위에 뜨게 되어 있다. 그러니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매우



## 행사안내

안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윈드서핑이 여름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이 바람이 잘 불어 오히려 재미는 그 때가 더 있으며, 겨울에도 드라이 슈트라는 옷을 입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도시 주변의 웬만한 해수욕장이나 한강에는 동호인들이 클럽을 만들어 즐기며 강습도 하고 있다.

윈드서핑을 배우려면 장소나 바람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4~7일 정도 체계적인 강습을 받으면 초보적인 세일링을 즐길 수 있다.

강습비는 4일 기준으로 10~20만원 정도이며, 연회비 50~70만원을 내면 강습을 무료로 하는 곳이 많다.

이번 여름에 윈드서핑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단 너무 깊이 빠져 생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국윈드서핑협회 <http://www.kwsa.or.kr>〉



2001년 중소기업청 매일경제 전자신문사 주관  
전국 인터넷 비지니스 공모

## “금상” 수상기업

### ■ 홈페이지제작

[www.egitec.co.kr](http://www.egitec.co.kr)

### ■전자상거래(쇼핑몰)구축

[www.ebiz2000.co.kr](http://www.ebiz2000.co.kr)  
웹호스팅 월55,000원

###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수수료 : 3.2%

### ■SMS 시스템 구축

[www.kt-sms.co.kr](http://www.kt-sms.co.kr)



[egitec.co.kr](http://www.egitec.co.kr)

## 이지텍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수복 (14회 기계과)

[www.egitec.co.kr](http://www.egitec.co.kr)

E-mail:[anchor@anchor.co.kr](mailto:anchor@anchor.co.kr)

Tel.055-232-510

## 음식 궁합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영양분이 손실되거나 맛을 잃는 것도 있다.

바다의 단백질이라는 굴은 레몬과 궁합이 잘 맞는 대표적인 식품. 영양이 풍부한 굴은 세균번식이 잘 되는 데다 자가효소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성분변화를 일으키며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런 결점을 보완시켜줄 수 있는 것이 레몬이다. 레몬은 풍부한 구연산이 들어 있어 세균의 번식을 막는 살균작용을 하고 신맛이 굴의 비린내를 없애준다. 또 굴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도 한다.

두부와 미역도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 함유된 사포닌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체내의 요오드 결핍을 초래해 갑상선호르몬 생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나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막아준다.

당근에는 비타민 A와 칼슘, 인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그냥 먹어도 좋으나 비타민 A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 따라서 식용유를 사용해 요리를 해 먹으면 보다 완벽하게 비타민을 섭취 할 수 있다.

복어요리에 미나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나리가 복의 독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복에는 테트로도톡신이란 독성분이 있는데 미나리는 이 독을 해독시켜준다. 미나리에는

또 비타민 A,B,C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인삼과 꿀은 오래전부터 궁합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은 강장효과는 있으나 열량이 부족하다. 반면에 꿀은 열량이 풍부하다. 때문에 인삼을 꿀과 함께 사용하면 피로회복에 좋다.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생선에 많은 장염 비브리오균이나 장

티푸스균 등의 살균에 생강이 좋기 때문이다. 함께 먹어 좋지 않은 식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토마토나 딸기에 설탕을 쳐 먹는 것. 설탕은 팔기, 토마토에 많은 비타민B를 파괴시킨다.

김에 기름을 발라 먹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름 발라 바로 구워먹을 경우는 괜찮지만 기름이 오래되면 산화돼 유해성분을 만들기 때문이다.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변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들 식품에는 모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어 이것이 변비와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중국의 고전인 「식경」에는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양의 간과 산초, 양고기와 생선회, 사슴고기와 메기, 소의 간과 메기, 닭고기와 생선국, 메추리고기와 버섯, 달걀과 생파 마늘, 봉어와 설탕, 전어와 메밀국수, 팥과 잉어, 겨자와 토끼고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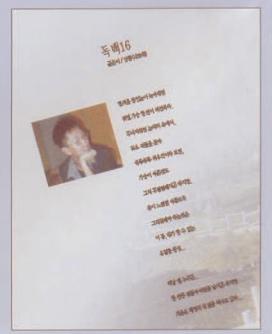


## 동창회보 원고 모집

동문들의 참여속에 알차고 볼거리가 있는 동창회보가 만들어집니다.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 또는 선물을 드립니다.

### 1. 원고 내용

- 1) 문예작품 : 동문 또는 가족의 시, 수필, 꽁트, 만화, 사진 등
  - 2) 제언 : 동창회 또는 동문에 바라는 글
  - 3) 각종 정보 : 창업, 사업, 기타
  - 4) 소식 : 동문 동정, 각종 행사
  - 5) 공지사항 : 모임 및 행사 안내
  - 6) 구인, 구직
  - 7) 기타
2. 원고 마감 : 여름호(6월 15일), 가을호(9월 15일), 겨울호(12월 15일)
3. 접수 : 사무국  
Email.samukuk@hanmir.com  
Fax.051-746-6747



## 행사안내

### 하계휴양소 운영

많은 동문들의 열띤 호응 속에 운영되었던 하계휴양소를 금년에도 학교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게 되었다.  
 기간 : 2003. 7. 19(토) ~ 8. 17(일) 〈1개월〉  
 장소 : 모교 동관 기숙사 1층 10실  
 사용료 : 30,000원

신청방법 : 예약 후 사용료 입금 순  
 예약방법 : 팩스(051-746-6747), samukuk@hanmail.com로 접수  
 ※ 팩스와 E-mail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전화(051-742-6746)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회동기회 하계수련회

12회 동기 및 가족들을 위해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1박2일 동안 푸짐한 먹거리와 상품을 준비하여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부산동기회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 주관 : 12회 부산동기회

날짜 : 2003. 8. 16(토) ~ 17(일) 〈1박 2일〉

장소 : 총동창회 하계휴양소(동관 기숙사)

참가비 : 무료

신청 : 부산동기회 총무 이형로 (019-210-3675)

### 14회 졸업 20주년 모교방문의 날 행사

날짜 : 2003. 10. 18(토) 18:00  
 장소 : 모교  
 문의 : 추진위원장 이상환(017-577-9421), 수석부위원장 박광열(011-356-8782), 총무 강성수(011-852-2748)

### 제31차 기능탑제전

날짜 : 2003. 10. 19(일)  
 장소 : 모교 운동장 및 교정 일원  
 주최 : 총동창회  
 주관 : 9회동기회  
 행사내용 :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 문의 : 추진위원장 최병철(011-875-3157), 총무 김용현(011-488-0467)

### 제2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주최 : 부기회  
 주관 : 창원부기회  
 후원 : 총동창회  
 날짜 : 2003. 10. 20(월)  
 장소 : 창원CC(예정)  
 참가대상 : 동문 및 가족  
 참가접수 : 9월 30일까지  
 문의 : 창원부기회 총무 위호철(8회, 011-559-2096)

### 4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4회동기회가 가을에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회장 김은봉(011-599-0585)  
 총무 조승현(018-581-8652)

## 동문명부대금 납부 안내

아직까지 동문명부대금을 못 내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국민은행 119-01-0362-921 황해구      명부대금 : 30,000원

## 동문명부 잔여분 판매

동문명부 잔여분을 판매합니다.

한정본을 제작했으므로 여유분이 많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문방법 :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주문

발송 : 입금 확인 후 등기 또는 택배 발송

계좌 : 국민은행 119-01-0362-921 황해구

금액 : 30,000원



## 동창회비 납부에 동의한 동문들

동창회비를 월 1,000원씩 전화요금으로 납부하는데 동의한 동문들의 명단입니다

1 자동차 양휘모	8 기계 문봉관	9 전기 김황운	10 전기 이철호	12 기계 박장열	14 기계 유흘곤	16 기계 이상찬	19 배관 심상정
1 배관 이상부	8 기계 박경우	9 배관 이현원	10 기계 이홍득	12 기계 백운수	14 기계 이상길	16 배관 이영길	19 기계 안길준
1 자동차 이철규	8 기계 박재현	9 기계 박원종	10 전기 장근준	12 기계 윤경섭	14 기계 이재철	16 기계 이장준	19 기계 이도원
1 자동차 홍정희	8 기계 박광식	9 기계 박진업	10 기계 윤태수	12 기계 윤태수	14 기계 이진식	16 기계 이현주	19 기계 이장현
2 기계 송우섭	8 기계 박근중	9 기계 배관	10 기계 정종훈	12 기계 이영진	14 기계 이화열	16 기계 정성현	19 기계 정종수
2 배관 신창용	8 기계 박명도	9 기계 서정돈	10 기계 정종훈	12 기계 임영록	14 기계 임선흐	16 기계 정성룡	19 기계 최종구
2 전기 이영관	8 기계 박성규	9 기계 서주원	10 기계 정호진	12 기계 조남훈	14 기계 임영택	16 기계 지병기	19 배관 최종열
2 배관 황성근	8 기계 박인식	9 기계 정경태	10 기계 장대연	12 기계 정건우	14 기계 장지호	16 기계 한부상	19 기계 황보진
3 기계 김병길	8 기계 박진환	9 기계 신영우	10 기계 조양상	12 기계 정진섭	14 기계 장대권	16 기계 혜호령	20 배관 권수환
3 자동 차김용수	8 배관 박종록	9 기계 이나균	10 배관 조영준	12 기계 주동원	14 기계 장영태	16 기계 강신용	20 기계 김성호
3 기계 김의	8 기계 박주석	9 기계 이진구	10 기계 주동원	12 기계 최승수	14 기계 전찬광	17 기계 권동식	20 기계 김판진
3 기계 김진봉	8 배관 박준화	9 배관 장은원	10 기계 주우식	12 기계 허성건	14 기계 정용관	17 기계 김권철	20 기계 석상호
3 기계 김혜	8 기계 박판세	9 배관 전상규	10 기계 지우석	12 기계 최근동	14 기계 정승우	17 기계 김덕수	20 기계 신호철
3 자동차 오근수	8 기계 배자한	9 배관 정경태	10 기계 최희근	12 기계 김기현	14 기계 배우호	17 기계 김성준	20 기계 윤석구
3 기계 임재운	8 기계 이성근	9 기계 정동락	10 배관 최병철	12 기계 김기현	14 기계 김종백	17 기계 김종택	20 기계 한지호
4 배관 강수근	8 배관 송형덕	9 기계 정민수	10 전기 혀영신	12 기계 김대성	14 기계 공순식	17 기계 김기현	21 기계 김학봉
4 기계 김강화	8 배관 신의수	9 기계 조현태	11 배관 강휘석	12 기계 김양달	15 금속 유승	17 기계 이성렬	21 기계 권혁민
4 자동차 김나조	8 배관 안동영	9 기계 지명식	11 기계 김길성	12 기계 김영우	15 금속 김길환	17 기계 박상기	21 기계 김남호
4 전기 김종탁	8 전기 안동학	9 기계 최명규	11 기계 김득규	12 기계 김제곤	15 기계 김동효	17 배관 박한식	21 전기 김배관
4 기계 박달영	8 기계 양복승	9 기계 강성구	11 기계 김문천	12 기계 정우상	15 기계 김명수	17 배관 서정희	21 기계 김양수
4 전기 백일호	8 기계 이중현	9 기계 정승준	11 기계 김법민	12 기계 박태홍	15 기계 김성용	17 기계 신주수	21 기계 김영복
4 기계 배홍식	8 기계 오용만	10 기계 광봉규	11 배관 김봉우	12 기계 서문석	15 기계 김재운	17 기계 유승	21 금속 김영욱
5 전기 김재정	8 기계 박화정	9 기계 꽈꼬필	11 기계 김옥천	12 기계 성경만	15 기계 김진복	17 기계 이성렬	21 기계 김진열
5 기계 김남규	8 기계 윤종남	10 기계 구의회	11 기계 김용조	12 기계 배관 손병진	15 전기 문상현	17 기계 이재은	21 기계 박준아
5 배관 윤수관	8 기계 윤종남	10 기계 김귀성	11 기계 김원기	12 기계 신두기	15 기계 김동일	17 기계 이종일	21 기계 박준아
5 자동차 이동영	8 기계 이동영	10 기계 양복승	11 기계 김임동	12 기계 김길호	15 기계 박준호	17 기계 이홍근	21 기계 양직
5 기계 이학재	8 기계 이팀수	10 배관 김규동	11 기계 김정준	12 기계 박준호	15 기계 배우호	17 기계 장두선	21 기계 우인환
5 기계 정종득	8 기계 이병섭	10 기계 김동수	11 기계 강봉상	12 기계 이성철	15 기계 신현렬	17 기계 전민호	21 기계 운동구
5 배관 정현섭	8 기계 이성희	10 기계 김문학	11 기계 김정훈	12 기계 김기현	15 기계 안상돈	17 기계 최현호	21 기계 이연학
5 기계 전원태	8 배관 이연수	10 기계 김선찰	11 기계 김종길	12 기계 이일행	15 기계 암동재	17 기계 흥동식	21 기계 임현제
6 기계 강경은	8 기계 이용현	10 기계 김순화	11 기계 김종훈	12 기계 이주형	15 기계 이재은	17 기계 박준아	21 기계 박준아
6 기계 김상규	8 전기 이우달	10 기계 김용민	11 기계 김기현	12 기계 신두기	15 기계 이종일	17 기계 이종일	21 기계 박준아
6 기계 이연환	8 배관 이은기	10 전기 김용식	11 기계 남덕희	12 기계 김기현	15 기계 이홍근	17 기계 박준호	21 기계 양직
6 기계 장철호	8 기계 이인원	10 배관 김제록	11 기계 남진규	12 기계 정영철	15 기계 김기현	17 기계 장두선	21 기계 우인환
6 자동차 정희조	8 기계 이종득	10 기계 김종상	11 기계 김봉상	12 기계 장용우	15 기계 이상용	17 기계 김용석	22 기계 배병우
7 전기 김동률	8 기계 이종득	10 기계 김종찬	11 기계 김이룡	12 기계 전만수	15 기계 이세기	18 기계 김윤규	22 기계 부기철
7 전기 김재호	8 전기 이창규	10 기계 김주문	11 기계 서일식	12 기계 전용식	15 기계 이승일	18 배관 김일수	22 전기 성관현
7 기계 신동철	8 기계 이한영	10 기계 김진한	11 전기 신을순	12 기계 배관 조용국	15 전기 강정호	18 전기 김정호	22 전기 이동호
7 배관 안기계	8 기계 이한철	10 기계 남병국	11 배관 윤성환	12 기계 조연연	15 기계 김현용	18 기계 김현용	23 기계 박종일
7 기계 안종련	8 기계 전두배	10 배관 류순철	11 기계 이군백	12 기계 윤성환	15 기계 구태섭	18 기계 김관후	22 기계 서희식
7 전기 이달호	8 기계 정재송	10 기계 벽기환	11 기계 이기선	12 기계 전기수	15 기계 류병희	18 기계 문성구	23 기계 문성구
7 기계 이윤수	8 배관 정찬교	10 기계 박내경	11 기계 이동제	12 기계 청기수	15 기계 문병선	18 기계 김성태	24 배관 김성태
7 기계 이연현	8 기계 정천수	10 기계 박영복	11 기계 이석환	12 기계 최상철	15 기계 박두진	18 기계 박두진	24 기계 김창용
7 기계 임인기	8 기계 정형식	10 기계 박은기	11 기계 이웅호	12 기계 하찬식	15 기계 박재용	18 기계 박재용	24 전기 김재환
7 기계 장인식	8 기계 조근	10 배관 박종한	11 기계 이웅	12 기계 김기순	15 기계 현용학	18 기계 박오식	24 배관 박찬익
7 기계 최영호	8 배관 조남호	10 기계 박진식	11 기계 이원두	12 기계 김기준	15 기계 박정도	18 기계 박정도	24 전기 이경훈
8 기계 강제동	8 배관 조영래	10 배관 박진주	11 기계 이장권	12 기계 김기환	15 기계 황선초	18 기계 박종철	24 기계 이마동
8 기계 강명상	8 기계 조정수	10 기계 방현석	11 기계 정도영	12 기계 김기환	15 기계 김광실	18 기계 신희성	25 기계 김철호
8 전기 곽재만	8 기계 천지현	10 기계 성영식	11 기계 정일권	12 기계 김덕진	15 기계 김방원	18 기계 신재근	25 기계 이재성
8 배관 권명하	8 기계 최문장	10 배관 성훈경	11 기계 김윤석	12 기계 김기순	15 기계 김석명	18 기계 이경화	26 기계 김동구
8 배관 김귀팔	8 기계 최복립	10 기계 송귀봉	11 기계 조병현	12 기계 김재열	15 기계 김종수	18 배관 이병설	26 기계 김재홍
8 배관 김동선	8 배관 최진곤	10 기계 송정식	11 기계 조연래	12 기계 김진걸	15 기계 이윤철	18 배관 이윤철	26 기계 김한수
8 기계 김명환	9 기계 강봉국	10 배관 송정구	11 기계 최병숙	12 기계 김장희	15 기계 박종철	18 기계 박종철	26 기계 박선종
8 기계 김문성	9 기계 구창윤	10 기계 심재철	11 기계 하정근	12 기계 김기환	15 기계 임대민	18 기계 백민철	26 기계 이은호
8 기계 김석봉	9 기계 오영근	10 기계 오영근	11 기계 한만형	12 기계 민영선	15 기계 박병배	18 기계 최영삼	26 기계 윤경민
8 기계 김성의	9 기계 오장근	10 기계 박경하	11 기계 김상하	12 기계 김재열	15 기계 김종수	18 배관 최종학	27 배관 황효근
8 기계 김영수	9 기계 권진혁	10 기계 윤홍복	11 기계 조병현	12 기계 김진걸	15 기계 이윤철	18 배관 한상호	28 기계 윤경민
8 기계 김용학	9 기계 김광석	10 기계 이동수	11 기계 김제우	12 기계 김준석	15 기계 서도식	18 기계 한상호	부산교통공단
8 배관 김운기	9 전기 김길천	10 전기 이상룡	11 기계 김종만	12 기계 베석수	15 기계 황충열	18 기계 시영석	3 전기 유재균
8 기계 김재기	9 배관 김상국	10 기계 이의희	11 기계 김준식	12 기계 손임보	15 기계 신재룡	18 기계 강대일	8 전기 임기화
8 기계 김중철	9 기계 김종연	10 배관 이인규	11 기계 김경기	12 기계 양희구	15 기계 오학근	18 기계 김정수	10 기계 김호
8 기계 김창재	9 기계 김주상	10 기계 이재수	12 기계 남형웅	14 기계 안희경	16 기계 김석재	19 기계 김정수	10 기계 이경우
8 배관 김철수	9 기계 김호선	10 기계 이종광	12 기계 박동화	14 기계 양희구	16 기계 김정수	19 기계 김정수	

10 배관	최병학	10 기계	노규섭	3 기계	김득환	16 기계	김병진
11 기계	하상봉	10 기계	신순균	5 배관	김정호	16 금속	김희창
13 배관	김종석	11 기계	고경석	7 기계	김명규	17 기계	임학명
14 기계	천영주	13 금속	김동호	8 기계	허명진	17 기계	백기선
16 전기	곽성문	14 기계	김순봉	9 기계	박창현	17 배관	강준구
16 기계	김보열	14 배관	김양수	9 기계	신태범	17 기계	문병근
16 기계	양동길	14 기계	김현제	9 기계	이성희	17 기계	오경익
17 기계	이종훈	14 기계	김현대	9 기계	김근석	17 기계	이범식
18 기계	김양수	14 기계	안재득	9 기계	신명섭	17 기계	정원용
18 배관	김재억	14 기계	장정호	10 기계	김대운	17 기계	최남훈
18 금속	폐기장	16 기계	황석일	10 배관	이상규	18 금속	이영수
19 기계	김영근	18 배관	김일태	10 기계	고상규	18 기계	이정호
19 기계	이대석	18 배관	윤두희	10 기계	김홍길	18 금속	이종재
19 기계	임진근	18 배관	이종원	12 배관	김영운	18 기계	정해길
20 기계	정영호	19 기계	홍상범	12 기계	임남철	18 기계	정호열
21 기계	김동희	20 기계	정승권	13 금속	정호영	18 기계	천영록
21 배관	이진석	21 기계	조태제	14 기계	박형근	18 기계	강성호
21 배관	이진석	21 배관	장진수	14 기계	김성봉	18 배관	김병호
22 기계	박진영	22 기계	서영주	15 기계	구용술	22 기계	송용진
22 기계	박근태	23 기계	우갑식	15 기계	권광호	19 금속	조정희
5 자동차	백종업	23 배관	이재석	15 배관	김명호	개 588명	
5 기계	이우학	24 기계	백진섭	15 배관	김병훈	누계884명	
6 기계	김영목	24 기계	정경민	15 기계	박천수	-2003. 7. 15 현재	
7 기계	구보준	25 배관	윤성용	15 기계	여태종		
8 기계	김국현	25 배관	현대자동차	16 금속	이봉준		
					이효상		

**종합장비장**

- 1 기계 박진영
- 2 자동차 박근태
- 5 자동차 백종업
- 5 기계 이우학
- 6 기계 김영목
- 7 기계 구보준
- 8 기계 김국현

**초고압, 유압, 수압, 가스기기 수입·제작 전문**

1. 전동 pump, hand pump, RAM 등  
2. 수압 pump, air booster, gas booster 등  
3. 수압 test 장비, 기스 충진 장비 등

4. 유압 unit, 실린더, 각종 자동화 기기 등  
5. 초고압 hose, coupler, gouge 등  
6. pump, motor, solenoid, 일렉, 유령제어변 등

**하나기업**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78 산업용품유통상가 11동 109호  
Tel: 051-319-4194, Fax: 051-319-4195  
H.P.: 011-488-5781  
www.hanagiup.co.kr e-mail: ochon525@hanmir.com  
대표: 이병설 (18회 배관과)

**스프링핀의 천국**

▶ 다양한 종류: 둥니형(이빨핀), 테파형, 이중핀, 일반형(K.S 규격은 기본, 특수형 개발可在(금형비 없음))  
▶ 여러가지 재질 SK5, SUS304, SUS420, 인천동, 활동, S50C, CR, 기타재질  
▶ 풍부한 재고: 2000종 개발 생산중  
(자동차용, 건기자, 전자, 기계조립용, 특수목적용 등)  
▶ 저렴한 가격: 전문방문 대량생산으로 단기가  
저렴한 자동화 그룹 생산  
▶ 당시가 차체설계제작한 DIRECT PIN FORMER로  
전구격 직접제작 생산됨

**MULTI FORMER (부품 생산 전문) - 기계 자체 설계제작**

**성원 정공**

www.fastenerbank.co.kr  
www.pin-sp.com  
www.pinspring.com  
kangms1976@hanmail.net  
sw@pin-sp.com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0-8  
TEL : 051-302-4345(代)  
FAX : 051-302-0670  
H.P : 011-582-0670

**사장에게 바로문의 H.P: 011-582-0670**

〈동문기고〉

## 숨길 수 없는 기공인의 손재주

- 글. 홍종필(22회/행복한치과의원 원장, 051-897-2275)

“너 어쩌다가 치과의사가 되었느냐?”하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늘 준비하고 있는 티이다.

“내 손재주가 아까워서!”라고 나는 대답한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기계공고 친구들 보다 그렇게 손재주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단지 그들보다 영어, 수학을 조금 잘했을 뿐이다.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선생님 중에 김기봉 선생님이 계신다. 물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물리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보았다.

그때 선생님은 “집념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영어로 수학이고 물리가 있는 거야!”라고 대답하셨다. 거기에다가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몰두할 때 그의 아내가 식사를 갖다 준 것도 모르고 며칠씩 굶은 일화를 덧붙여주셨다. 그 때부터 어떤 일에든지 집념을 가지고 몰두 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에 목표를 두고 대입과 실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했던 나에게는 실습이 매우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었는데, 그 밀쓰에 힘을 내어 실습에도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난 실습땐 실습에 몰두했었고, 영어든 수학에 든 몰두한 것 같다. 실습에 집념을 가지고 몰두한 것이 지금 내가 손재

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치과의사로서 실력이라 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의학적 지식과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인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하는 손기술이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실습을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손재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입학한 치과대학에서 나는 다른 동료들 보다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아를 깎는 데 있어서 나는 아주 능수능란했고 몇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치 않았다. 보철물도 몇 곳만 손보면 금방 환자들이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었다.(나의 교만이 하늘을 치솟을 듯 하는군.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뭐..^^)

여하튼 나는 손재주가 남달라서 치과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치과의사가 되어 환자를 볼 때도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디지털, 정보화, 자동화 세상이라지만 사람의 손끝이 가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본다. 그런 이



유로 우리 기공인들이 연마해 온 손재주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기 뜻을 해내리라 믿는다.

옛 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틀니를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를 이식하여 자연치처럼 음식을 씹을 수도 있다. 임프란트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선반과 밀링이 생각나고, 임플란트가 상부구조물(어버트먼트, 골드실린드)와 결합될 때는 내가 전공한 기계설계에 접목 시키게 된다. 한 눈에 봐도 기계적 결합구조가 머리에 확 들어온다. 직접 결합시킬 때에는 당연히 손이 가게 된다. 임플란트는 획기적인 치의학 분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손재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기계적 안목이 없으면 획기적이라해도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하지는 못한다.

지금 고등학교 때 닦은 기술과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동문들을 본다. 그들은 자기 전공을 살

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술을 썩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더욱 기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기공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다. 전공과 상관없는 직종이라고 항상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된 이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유롭고 넉넉한 맘으로 살아간다면 손재주를 발휘할 기회는 언제든 오리라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한 안목은 제 값을 하리라 믿는다. 사실은 나도 치과의사가 되어서야 나에게 잠재된 손재주가 있음을 알았다. 지금은 나의 손재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IA 기아자동차(주)**

**장평판매점**  
출고에서 폐차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리 최명주(20회기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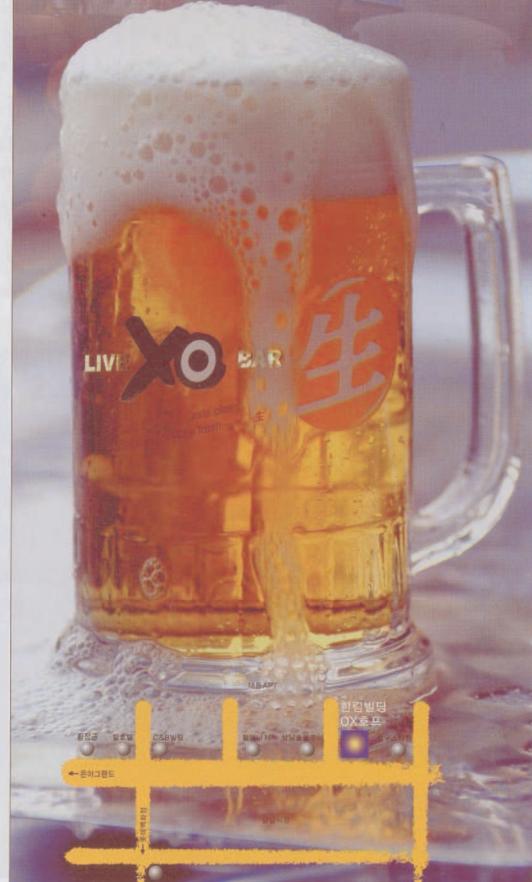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7-6  
전화 055-635-5111  
팩스 055-635-4011  
핸폰 017-856-0333



스카이라운지의 탁 트인 조망과  
생음악이 함께하는  
XO라이브호프에서  
연인과 함께 낭만을 즐기십시오.

대표 문수옥(8회 기계과)  
**XO라이브호프**

경남 창원시 상남동 20-1번지 하림 B/D10층 (상남사장옆)  
Tel.055-282-9987, Fax.055-282-8587, H.P.016-854-3937



〈인물탐구〉

## 풍자와 해학의 천재시인 김삿갓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적인 시로 유명한 천재시인 김삿갓의 본명은 金炳煥(김병연)이며, 아호는 蘭皋(난고)다.

그는 일생동안 팔도를 방랑하며 당대의 권문세도가나 토호들의 행태를 격조높은 시로 통렬히 풍자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시를 짖기도 했다.

김삿갓은 1807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강원도 영월에서 자랐다. 그의 선대는 평안북도에서 살았는데 그의 조부 金益淳(김익순)은 『拱景來亂』 당시 宣川府使(선천부사)로 재임 중이었으나 난을 진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군에 투항하고 말았다.

민란이 진압된 후 조정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처벌했고, 그의 부친 金安根은 당시 세도가문이었던 安東 金氏였으므로 화를 면했으나 화병으로 사망하였다.

김삿갓 모친은 어린 삼형제를 이끌고 황해도 谷山, 경기도 加平, 廣州를 거쳐 강원도 平昌, 寧越 三玉里에 이르러 정착하였다. 김삿갓 부모가 피신하는 길에 廣州에서 태어난 김삿갓은 寧越 땅에 정착하면서 화전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세상사람들이 그를 김삿갓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竹杖芒鞋(죽장망혜)와 삿갓 차림으로 떠돌아 다녔기 때문이다.

그가 스물두살에 寧越郡에서 치른 繩試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였는데 그때의 시험제목은 『論鄭嘉山忠節死 嘆金益淳罪通于天』(정가산의 충절을 찬하고 하늘에 닿은 김익순의 대역죄를 한탄한다)이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합격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시험제목에 거명된 金益淳이 조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부에 대한 불

경죄를 크게 뉘우치고 벼슬길을 포기했다. 조상을 뵙면 목이 없고 하늘에 부끄럽다고 하여 항상 삿갓을 쓰고 얼굴을 가려 참회와 속죄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김삿갓은 57세로 사사할 때까지 전국각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방랑걸식하였다.

김삿갓이 지친 몸으로 말년에 들린 곳은 전라남도 和順郡 同福面 龜巖里였는데 그곳에 있는 명소 『赤壁』에 매료되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1863년). 그의 무덤은 이곳에 가매장되었다가 훗날 그의 차남이 寧越 고향 땅으로 이장하였다. 한편, 김삿갓과 관련된 유적을 보면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경계지대에 분산되어 있다. 즉, 남한강 상류 南大川을 사이에 두고 북쪽 寧越郡 下東面於屯里 仙來谷(仙樂洞)에는 집터가 있고 근처 臥石里 노루목에는 묘소가 있다. 그리고 시내 건너 丹陽郡 永春面 접경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 詩碑가 세워졌다.

### 破格詩

天長去無執 花老蝶不來  
(천장거무집 화노접불래)

菊樹寒沙發 枝影半從地  
(국수한사발 지영반종지)

江亭貧土過 大醉伏松下  
(강정빈사과 대취복송하)

月移山嶺歛 通市求利來  
(월이산영개 통시구리래)

하늘은 높아서 가도가도 잡을 수 없고  
꽃이 시드니 나비 날아들지 않도다.  
국화꽃은 찬 모래밭에 피고  
나뭇가지 땅을 향해 반쯤 늘어졌도다.

강가의 정자를 가난한 선비가 지나다가  
크게 취하여 소나무 아래 엎어졌구나.  
달 기울어 산 그림자도 달라지니  
시장을 누비며 돈 벌어 오도다.

※ 이 시를 読音(독음)에 따라 읊어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가 된다.

천장에는 거미집이 끼고  
화로에는 검불 냄새가 나네.  
국수는 한 사발인데  
지령(간장)은 반 종지일세.  
강정과 사과를 빙어 와  
대추, 복숭아 아래에 놓네.  
워리! 사냥개는  
통시(번소) 구린네만 풍기네.

### 可憐故詩(가련기시)

可憐行色可憐身 可憐門前訪可憐

(가련행색가련신 가련문전방가련)

可憐此意傳可憐 可憐能知可憐心

(가련차의전가련 가련능지가련심)

### 가련이라는 가생에게

가련한 행색에 가련한 몸으로

가련의 문전에서 가련을 찾노라.

가련타! 가련에게 이 뜻을 전하면

가련은 이 내 가련한 마음 알아주리라.

### 竹詩

此竹彼竹化去竹 風打之竹浪打竹

(자죽피죽화기죽 풍타지죽낭타죽)

飯飯糊糊生此竹 是是非付彼糊

(반반죽죽생차죽 시시비비부피죽)  
賓客接待家勢竹 市井賣貰歲月竹

(빈객접대가세죽 시정매매세월죽)  
萬事不如吾心竹 然然然世過然竹

(만사불여오심죽 연연연세과연죽)  
萬事不拂予心竹 絲絲然世過然竹

#### 대시(竹詩)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아가며  
옳은 것 옳다. 그른 것 그르다 저대로  
부치세.  
손님 접대는 가세(家勢)대로 하고  
시정(市井) 매매는 시세대로 하세,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못하니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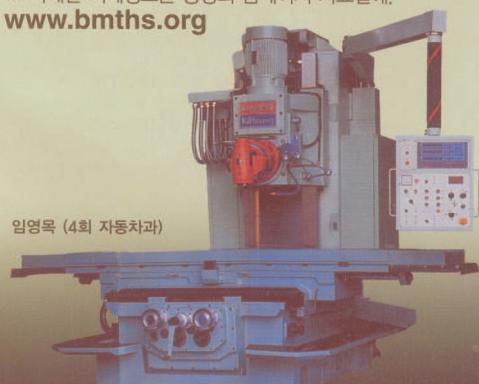
## 대형 공작 기계 전문

■위탁판매 ■카드할부판매 ■매입  
공작 기계: CNC선반. 머시닝 센터.

CNC밀링. 프레스 전 품목. 각종 중고 기계 판매

※ 자세한 기계정보는 동창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www.bmths.org](http://www.bmths.org)



임영목 (4회 자동차고)

일일종합기계상사

T.053-356-8760 H.016-508-1134

행복한 가정의 필수품 자동차에 관한  
진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幸 福



현대·기아자동차(주)부산사상지점

대리 김해철 (21회 기계과)  
Tel.051-314-3040~5. H.P.011-889-4266

## 자영업 창업은 선택과목에서 인생의 필수과목으로

- 정문식(1회 / 중소기업청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 )

중소기업청은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예비 창업자와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평생직장에서의 의미가 줄어드는 대신 SOHO, e-BIZ,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소자본 창업으로 자기 사업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난 5년여 동안 중소기업청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주요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비창업자와 기존 자영업자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창업 및 경영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 또 열심히 살려는 후배를 만나 용기와 희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생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다. 금년 초 40대 후배부부가 힘없이 찾아와 아내와 자영업을 하려는데 종자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야기며, 서비스, 음식업, 도소매업 등 업종도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템, 입지, 자금, 경영전략 등)를 상담할 경우도 있지만 때론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실패했던 일과 성공한 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등....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삶을 가꾸려는 부산기공 동문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소상공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존 사업자 여러분들에게도 사업상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길 바란다.

느껴본 것은 역시 전문기술 분야 사업이 많아 곳곳에서 역시 우리 부산기공의 저력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 최선배로서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 흐뭇하다.

자영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가끔씩 창업에 관한 정보(아이

소상공인의 정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종업원 9인 이하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4인 이하 지원사업 - 창업정보 제공, 정보자료실 운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최고 5,000만원 연5.9%, 1년 거치 4년 상환)

문의처 : 중소기업청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323-4960 ~ 2)

전문건설 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  
위생 냉, 난방 닥트설비 설계 시공/각종 공장 플랜트 설비공사

## 정진설비

### (주)정진설비

대표이사 김종배(8회 배관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08-1  
TEL.051-515-8851 FAX.051-515-8939  
HP.011-846-2791  
[www.j-jin.com](http://www.j-jin.com) E-mail:j-jin@j-jin.com



## 발명이야기 소니의 워크맨

20세기 일본의 10대 발명품 중 1위인 "라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워크맨"은 소니사가 개발한 히트상품이다.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가 된 워크맨, 일본 기업을 서구에 뿐만 아니라 한 일등공신 워크맨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워크맨은 실상 실패한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었다.

처음 워크맨의 본체를 개발한 사람은 소니의 연구원 이라 미즈로,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테이프 레코더인 프레스 맨을 개조해서 신상품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은 간 데 없이 녹음기능이 빠진 이상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고 말았다. 그 당시의 테이프 레코드들은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 녹음용으로 활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녹음기능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격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이라 미즈로의 발명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바로 이 때 우연히 소니의 창업자이며 명예회장인 이부카 마사루(1908~1997)의 눈에 띄었다.

"테이프 레코드라고 녹음하는 데만 사용하란 법이 있을까? 음질만 좋다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야!"

이부카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내는 훌륭한 음질에 차안하여 상식을 뒤엎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는 함께 연구 중이던 헤드폰을 이 플레이어와 연결하여 새로운 상품을 내도록 지시했다.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험실에서도 실패작이라고 낙인찍힌 물건이 대중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냉소를 보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놀라웠다. 워크맨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심지어 외국에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 일본을 찾을 정도였다. 이 덕분에 소니는 당당히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라 미즈로의 발명정신과 이부카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시대의 명물 워크맨은 이 두 사람의 능력이 합쳐져 탄생했다.

〈www.patyellow.com에서〉

TRUMATIC L3030

## 첨단레이저 절단기계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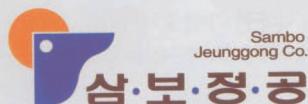
창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품질 제품을 실현합니다.



- ▶레이저 가공
- ▶해상용 전기 판넬
- ▶정밀 판금
- ▶소형 제관
- ▶각종 비철금속
- ▶유압 유니트



대표 김주일 (12회 배관과)



Sambo

Jeunggong Co.

부산광역시 사상구 쾌법동 561-5  
Tel. 051-327-7895/7896 Fax.051-327-7897  
E-mail. sambojg@korea.com

## 꿈

글쓴이 / 김수일(15회)  
하우징 인테리어 대표, 019-521-0488



이 막막한 잠의 나라에서  
칼날같은 맑은 공기 몇 모금 남아있지 않은  
에베레스트가 보이는 건  
숨이 턱턱 막히도록 오를 수 있는  
건강한 허벅지를 가지고 싶어서일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의지 강하지 못한 내 심장 때문일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  
그 사람을 만나 더 좋은 걸 해 보고 싶어라  
가진 게 많아서 부자이고 싶어라  
부자여서 베푸는데 넉넉하고 싶어라

밤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불현듯, 피가 뜨거워져  
내 몸을 끓어 넘쳐흐르는  
용기있는 땀

##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조선기자재 개발의 선두주자 선보공업(주)  
대표 최금식 (2회 배관과)을 찾아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라는 사훈으로 선보공업을 이끌고 있는 최금식 동문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하루 25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선보공업은 육상운반제품을 생산하는 부산 대대동 공장과 해양운송제품을 생산하는 구평동 공장, 그리고 목포대불공단 공장 등 3개 공장에 270여명의 사원이 선박건조 선진국의 기치를 내걸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다.

최 동문은 지난 76년부터 80년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81년부터 85년까지 대우중공업에 근무했으며 86년 대대동에서 선보공업의 전신인 남영공업을 창업해 현재는 3개 공장으로 기업을 성장 발전시킨 조선기자재 관련 산업의 선두 주자다.

지난 92년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삼성조선, 대우조선 등에서 무검사 인증을 획득한 선보공업은 조선기자재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크게는 선박용 기관실 구성장치이며 구체적으로는 최동문이 대형 조선소등에서 10여년 이상을 근

무하면서 국산화 개발에 관심을 가진 기관의 장 부문의 배관 부품류와 선박용 엔진의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기, 해수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이물질을 여과해 주는 장치인 Stainer 등이 주요 생产业이다.

이 생产业들의 경우 최 동문이 국산화에 성공하기 이전에는 전량 수입됐던 것으로 선박 건조사들의 경우 원가절감과 함께 외화절약에도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동문이 이처럼 15여년만에 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한마디로 열정 그 자체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 동문은 창업초기 조선소에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영세업체라는 이유로 자재를 제때 공급 받지 못해 납품시를 들고 자재상을 뛰어 다녀야 했으며,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난히 납품한 후의 보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지난 88년 상공부 지정 선박계열화 업체로 지정된 이후 국내 최초로 91년 조선용 패키지 유니트(Package Unit)개발에 성공했으며 이



를 기반으로 해마다 30%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선보공업은 자체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와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기술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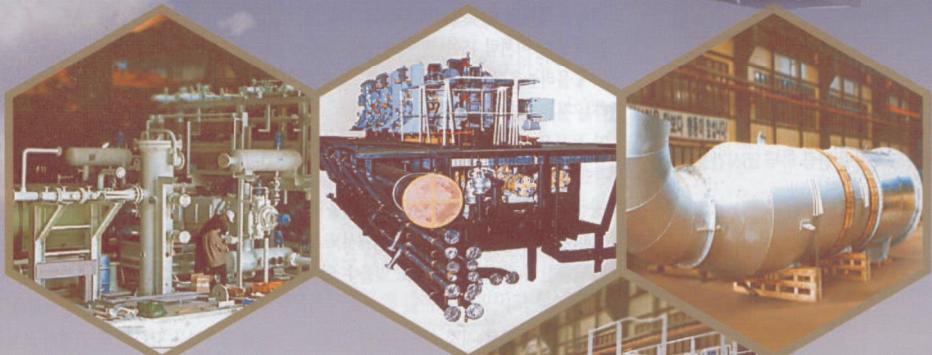
또 오는 2010년을 회사 성장의 새로운 도약 기로 삼고 지난 98년부터 「비전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부분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후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코자하는 선보공업은 리프트 21운동으로 혁신과 초점, 도약을 경영혁신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고객감동을 위한 품질 고급화로 이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우수 협력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선보공업은 이제 무차입 경영을 목표로 재무구조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한편 등산, 축구, 볼링 등 각종 사내 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각종 휴게시설이 있는 기숙사 운영 등 사원복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모교와 각종 학교에도 수년간 장학기금을 희사하고 동창회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의 사회환원에도 적극적이다.

취재/정은영(9회 기계과/경남신문 기자)

**“저희 선보공업은 고객과 함께 21C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최금식  
(2회 배관과)



船寶工業株式會社  
船寶UNITECH(株)



본사: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7-2번지 전화번호: 051-261-3454, FAX: 051-261-3455

Home : <http://www.sunboind.co.kr> E-Mail : sunbo@sunboind.co.kr

감천공장: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95-13번지 전화번호: 051-266-3454, FAX: 051-266-3455

Home : <http://www.sunbounitech.co.kr> E-Mail : sunbo@sunbounitech.co.kr

목포공장: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00-5번지 전화번호: 061-462-3454, FAX: 061-462-3455

Home : <http://www.sunbounit.co.kr> E-Mail : sunbo@sunbounit.co.kr